

1 특화단지 목표 및 추진전략

[단지목표] 글로벌 셀 생산기지 연계 LFP 플러스 핵심소재 대량생산 거점 구축과 순환형 공급망 완성

□ 단지명 : 포항 LFP 플러스 핵심소재 소부장 특화단지

* LFP 플러스 (LFP+): LMFP(LFP에 망간첨가), 미드니켈(니켈함량↓), LMR(망간함량↑), 나트륨 등 현재 LFP 중심의 보급형 배터리를 고도화한 새로운 배터리

□ 위치 : 경상북도 포항시 이차전지클러스터 및 철강산업단지 등 약 500만평

- 신청권역 500만평과 배후 연계권역을 포함한 LFP+ 특화단지 조성
 - 영일만일반산업단지 4,517천㎡(137만평, 분양률 94%)
 -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6,078천㎡(184만평, 분양률 54%)
 - 국가철강산업단지 13,183천㎡(399만평, 분양률 100%)

□ 단지목표 : 글로벌 셀 생산기지 연계 LFP 플러스 핵심소재 대량생산 거점 구축과 순환형 공급망 완성

- (배 경) 중국 중심 LFP 공급망 구조 심화에 대응 핵심소재 국내 내재화 필요
 - K-배터리 전략의 “셀 해외생산-핵심소재 국내생산” 구조에 부합
 - 소부장 3R(대체·저감·재활용) 기반 공급망 확보 전략과 정합
 - 포항은 양극재·음극재 동시 대량생산과 철강 부산물 기반 원료화, 공정 소부장이 동일 권역에 집적된 국내 최대 수준의 이차전지 산업 구조 보유

☞ LFP+ 보급형 배터리 플랫폼의 핵심소재 소부장 생태계 조성으로 k-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

- (주요 내용) LFP+ 핵심소재 국내 대량생산 거점 구축과 순환형 공급망 완성
 - LFP+ 핵심소재 핵심소재 국내 대량생산 거점 구축
 - 수요-공급 공동개발 및 Race-to-Market 체계 운영
 - 3R(대체·저감·재활용) 순환원료 내재화(Closed-loop)
 - 글로벌 공급망 선점 및 원스톱 지원
- (자립 목표) 공급망 자유도 제고 (원료/전구체) 5%→30%, (소재) 30%→70%, (제품) 10%→50%
 - 앵커기업 14조 투자 확정과 LFP+ 핵심소재 양산계획 확정
 - 수요기업과 공동개발 및 장기공급 협약을 통해 LFP+ 핵심소재 공급망 자유도 단계적 확대

[추진전략]

수요-공급 공동 R&D 기반

LFP+ 핵심소재 생산협력 거점 구축과 3R 순환형 공급망 내재화

□ LFP+ 핵심소재 핵심소재 국내 대량생산 거점 구축

- LMFP 중심 보급형 양극재 조기 양산 체계 확립
 - 양극재: (기존 첨단특화단지)하이니켈 양극재 → (신규 소부장특화단지) **보급형 LFP+ 양극재까지 확장**
 - 미드니켈·LMR은 확장 트랙으로, 나트륨계는 차세대 ESS용으로 단계적 확장
- 흑연·하드카본·Si-Graphite 음극재 동시 집적
- 글로벌 셀공장 공급 연계 체계 구축
- ☞ “셀 해외생산, 핵심소재 국내생산” 구조에 부합하는 핵심소재 글로벌 공급 허브 구현

□ 수요-공급 공동개발 및 Race-to-Market 체계 운영

- 배터리 3社와 공동 R&D 및 양산연계 실증
 - ☞ 기술개발→파일럿 검증→양산 전환의 기간 단축(Race to Market)
- 개발 완료 품목 우선구매·장기공급 협약 체결
- LOI 기반 공급 안정성 확보
- 다수 수요-다수 공급 협력 모델 운영

□ 3R(대체·저감·재활용) 순환원료 내재화(Closed-loop)

- (Replace) 중국산 흑연·FePO₄ 등 대체 원료 국산화 (5%→30%)
- (Reduce) AI 기반 공정 최적화 및 고밀도화 기술로 원료 사용량을 저감
 - AI 공정기술 기반 불량률 감소 (10%↓), 스크랩 발생 최소화(5%↓), 에너지 사용량 저감
 - 고탭밀도·고밀도화 및 나노코팅 공정으로 원료 사용량 저감(5%↓)
- (Recycle) 철강 및 이차전지 부산물을 재자원화
 - 공정부산물 재자원화 하여 고순도 FePO₄, MnSO₄, Na₂CO₃ 이차전지 국산화 (5%→35%)
 - 재생원료 사용률 단계적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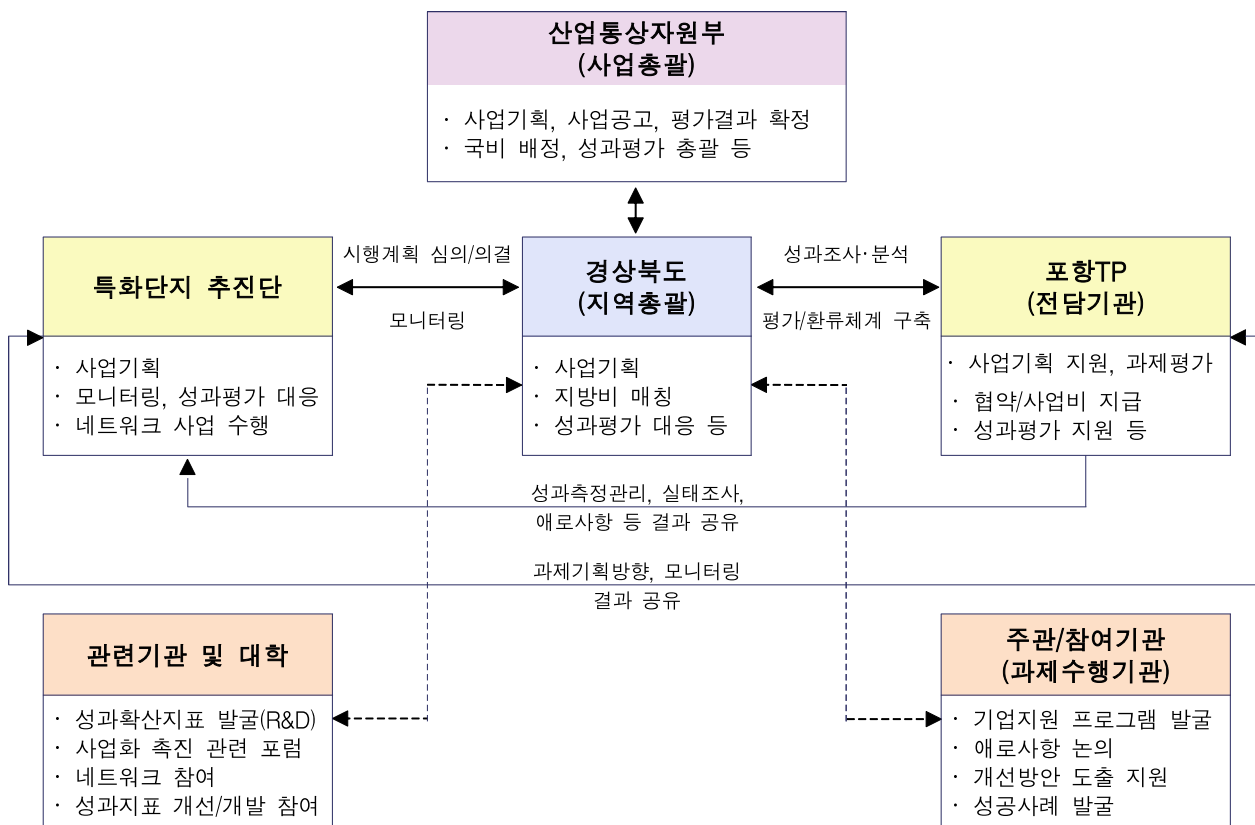
□ 글로벌 공급망 선점 및 원스톱 지원

- 북미·유럽 LFP+ 셀공장 핵심소재 공급망 선점
- 해외 ESS 프로젝트 및 신수요 산업 대응
- 국제 인증(UL·CE) 기반 납품 체계 구축
 - UL·CE 등 글로벌 인증 대응 시험평가 체계 구축

- 원료·전구체-소재-셀-팩 전주기 성능·수명·안전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
- **AI 기반 공정 최적화 및 디지털 트윈 도입**
- 재생원료 생산인증-사용인증 연계 및 추적관리 체계 도입
- 산업부·경북도·포항TP·앵커기업 공동 추진체계 운영
 - 인허가·전력·용수·폐수 Fast-Track을 운영

□ 추진체계

- 산업부 총괄-경북 지역총괄-포항TP 전담-추진단 집행의 4단 구조




2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강화 효과

[집적도] 특화단지 내 160개 기업 중 관련 소부장 기업 85개사

□ 포항 LFP 플러스 핵심소재 소부장 특화단지

- 영일만·블루밸리·국가철강산단을 중심으로 양극재·음극재 동시 대량 생산과 원료·재활용·공정 소부장이 집적된 LFP+ 플랫폼 완결형 거점으로 총 160개 기업 중 85개 입주
- “철강 부산물 기반 Fe·Mn·나트륨·코크스·피치 원료 + LFP 플러스 양극재·음극재 + 생산공정 소부장(소성·분체·내화·AI) + 국제인증 평가를 단일 권역에서 통합” 단순 집적을 넘어 LFP+ 핵심소재 생산협력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임

☞ 이러한 집적 구조는 개발-양산 전환기간 단축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로 직결

포항 소부장 특화단지 및 R&D 집적단지	포항시 특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구: 50만 ○ 총생산액: 철강 35조원, 이차전지 10조원 ○ R&D 집적: 약 3,00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
영일만일반산업단지: 총 40社중 소부장 30社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앵커기업: 포스코퓨처엠, 에코프로BM ○ 주요기업/기관: 포스코실리콘웍스, 에코프로 CnG, 에너지머티리얼즈, 우전지앤에프, 한동대 ○ 투자계획: 9조원 ('23~) ○ 특징: 원료-전구체-양극재-재활용 특화 	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: 총 20社중 소부장 15社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앵커기업: 포스코퓨처엠 ○ 주요기업/기관: 뉴테크엘아이비, 미래세라텍, 피엠그로우,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○ 투자계획: 5조원 ('23~) ○ 특징: 음극재, 부품 및 사용후 배터리 특화
철강산업단지: 총 100社중 소부장 40社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앵커기업: 포스코, 포스코이앤씨, 포스코DX ○ 주요기업/기관: 동국제강, 심팩, 네이처이엔티, 폴리텍 ○ 투자계획: 설비장비 전환 및 공정 고도화 투자 추진 ○ 특징: 철강부산물 재활용, 설비/장비 특화 	R&D집적단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앵커기관: 포스텍, RIST, 포항가속기연구소 ○ 주요기관: 포항가속기연구소, 한국로봇융합연구원, 나노융합기술원, 포항테크노파크, 포항소재산업진흥원, 체인지업그라운드 ○ 특징: 박사급 연구원 3000명이상, 벤처기업 집적화




□ 앵커기업 중심의 밸류체인

- 에코프로·포스코 중심 원료-전구체-소재-재활용 수직계열화
 - (원료/전구체) 포스코홀딩스, 에코프로CnG, 에코프로CnG,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
 - (소재) 포스코퓨처엠, 에코프로BM, 에코프로EM, 포스코실리콘웍스 등
 - (플랜트·부품·장비) 포스코이앤씨, 포스코DX
- 철강 및 이차전지 부산물 기반 양극재용 Fe·Mn·Na 및 음극재용 코크스·피치 원료화

□ 핵심소재 대량생산 소부장 집적화 거점

- 포항은 핵심소재 대량생산을 위한 원료-소재-플랜트-공정설계-AI 공정최적화-품질관리-인증까지 연결되는 소부장 집적 단지
 - ☞ 포스코홀딩스·에코프로CnG의 원료·재활용, 포스코퓨처엠·에코프로비엠의 핵심소재소재, 포스코이앤씨의 공장 증설·신설·통합설계 역량과 포스코DX의 AI 기반 디지털트윈 공정자동화 기술을 결합한 원료·소재·플랜트·스마트공정 통합형 소부장 생태계 역량 보유

□ 수요-공급기업간 연계협력 개념

수 요 기 업		
셀 마더팩토리 역할 / 셀 해외생산		
 LG Energy Solution	 SAMSUNG	 SAMSUNG SDI
		 SK On

경북 포항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

소재 특화단지를 넘어 공정 소부장까지 확장하는 고부가 특화 전략

앵 커 기 업

국내 마더소재거점 역할 / 핵심소재 대량생산 및 해외 셀공장 공급

 에코프로비엠

 포스코퓨처엠

원료社

- 양극재 핵심원료 8종 (FePO₄, MnSO₄, Na₂CO₃ 등)
- 음극재 핵심원료 6종
- 첨가제 6종 국산화
- 포항 특화 전략 : 철강부산물 회수 - Fe·Mn, Li·Ni·Mn, Na, 인조흑연 등

포스코홀딩스 (철강부산물 대장)
에코프로CnG (이차전지부산물 대장)
에코프로머티리얼즈 (전구체 대장)
에너지머티리얼즈

부품社

- 내화·내열부품 4종
- 내식·화학 공정부품 5종
- 분체공정 핵심부품 4종
- 분위기·가스 제어부품 4종
- 스마트 제어 핵심부품 4종

미래세라텍
이비덴크래파이트
엔다이브
피엠그로우

장비社

- 소성·열처리 장비 국산화 4종
- 분체·입도 제어 정밀장비 5종
- AI기반 공정 최적화 장비 4종
- 글로벌인증대응 시험평가장비 5종

포스코이앤씨 (플랜트 대장)
포스코DX (공정 및 AI 대장)
㈜블릭나인

☞ 단순 집적을 넘어 LFP+ 핵심소재 생산협력 거점으로 기능

[경쟁력] 고에너지밀도 하이니켈과 보급형 LFP+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한 국내 최대의 배터리 핵심소재 대량생산 거점

□ 플랫폼 경쟁력 : LFP+ 보급형 배터리 핵심소재 국산화 기반 확보

- 중국과 일본이 우세한 LFP+ 및 차세대 전지용 원료·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제조원가 절감 및 품질 경쟁력 동시 확보
 - LMFP·LMR·미드니켈·나트륨계 양극재 양산체계 단계적 구축 (10만톤/년 생산능력)
 - 흑연·하드카본·Si-Graphite 음극재 국산화 및 고도화 (5천톤/년 생산능력)
 - 철강 및 이차전지 부산물 기반 Fe·Mn·Na·Li 회수기술 내재화 (1만톤/년 생산능력)
 - 고밀도화·나노코팅·고탭밀도 공정 초격차 기술 확보
 - 공급망 자유도 제고

☞ 보급형 배터리 플랫폼의 원료-전구체-양극음극재-재활용까지 완결형 산업 구조 구현

□ 포트폴리오 다원화 경쟁력 : 고에너지-보급형 동시 대응 구조

- 기존 첨단전략 특화단지의 고에너지 밀도 하이니켈 중심 생산체계와 연계하여, 보급형 LFP+ 플랫폼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이원화 생산거점
 - (기존) 고에너지밀도 양극재 초격차 기술 (첨단특화단지 100만톤/년 생산능력 구축중)
 - (확장) LFP+ 양극재 대량생산 체계 (10만톤/년 생산능력)
 - 동일 권역 내 생산·평가·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

☞ 글로벌 시장의 고에너지-보급형 수요 동시 대응 가능

□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: 해외 셀공장 직결형 국내 핵심소재 생산 거점

- “셀 해외생산, 핵심소재 국내생산” 전략의 글로벌 공급 허브 구축
 -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·유럽 LFP+ 셀공장 핵심소재 공급망 선점 (셀공장 3개이상 공급)
 - 해외 ESS 프로젝트 및 방산·로봇·선박·UAM 등 신수요 맞춤형 기술개발·실증 대응
- ☞ 국내 소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
- 해외 광물·원료 조달 다변화와 국내 소재 생산,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까지 연결하는 단계형 공급망을 포항에서 구현
 - 영일만항 기반 글로벌 원료 수급 및 수출 물류 경쟁력 확보

□ 생산협력 경쟁력 : 수요-공급-양산검증 통합 체계

- 수요기업 요구성능 기반 공동개발-파일럿-양산전환-우선구매(LOI)로 이어지는 Race-to-Market 체계를 구축
 - 원료→전구체→양극·음극→셀→모듈 전주기 공동 개발
 - 개발 완료 품목 우선구매·장기공급 협약 체계의 Race-to-Market 기반 개발 기간 단축
 - 다수 수요기업(배터리 3사/글로벌 OEM)-다수 공급기업(원료/부품/장비) 협력모델로 설계하고, 양산성능평가 Fast-Track을 운영

☞ 단순 집적단지를 넘어 '생산협력 거점'으로 기능

□ 소부장 확장 경쟁력 : 소재에서 장비·부품까지 확장하는 고부가 전략

- (소재) 기존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LFP+ 양극재·음극재까지 확장
- (장비) 소성·열처리 장비, 분체·입도 제어 정밀 장비, AI 기반 공정 최적화 장비 국산화
- (부품) 내화·내식·정밀 부품까지 포함하는 소부장 생태계 구축
- (인증) AI·트윈랩 기반 공정조건-품질-원가-탄소(LCA) 최적화 및 글로벌 셀사 인증 대응

☞ 소재 특화단지를 넘어 공정 소부장 산업까지 확장하는 고부가가치 전략 실현

□ 양산계획 :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社 LFP+ 핵심소재 생산라인 구축 중

- (확정) 기존 고에너지 밀도 핵심소재 생산라인 기반 LFP+ 전환·증설 추진
- (추진) LFP+ 전용 라인 단계적 확장 계획
- (R&D) 철강 및 이차전지 부산물 LFP+ 원료화 기술
 - FeSO_4 , FePO_4 , MnSO_4 , Na_2CO_3 전환 및 고순도화 기술
 - 철강 부원료인 코크스와 피치 활용 음극재 제조 기술

☞ 특화단지 지정 시 LFP+ 핵심소재 전용 생산라인 확장 투자 가속화 가능

3 기반시설 확보

[기반시설] 특화단지 전용 기반시설 완비 및 확충 계획 수립

□ 입주 예정 기업의 확정 수요 반영하여 단계적 증설 계획 수립

1 영일만 산업단지

				전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현재) 468MW → (확충) 718MW(+250MW) ▶ (증설) 청하~동포항 송전선로(8km) 신설(~'28.)
				용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현재) 7,500m³/일 → (확충) 60,000m³/일 ▶ (확충) 양덕정수장 단계별 용수 공급시설 확충(~'26.)
				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현재) 자체처리 후 직방류 ▶ (신설) 44,000m³/일 처리장 신설 추진
면적	4,517,759m²			도로	▶ 단지 內 총 80개 일반도로 노선 확보
입주기업	150여개사	종사자	4,500여명		

2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

				전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현재) 200MW → (확충) 630MW(+430MW) ▶ (증설) 죽정(공당) 변전소 및 분기선로 신설(~'26.) ▶ 신포항변전소 변압기 증설사업(~'26.)
				용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현재) 18,350m³/일 → (확충) 40,115m³/일 ▶ (신설) 정수장, 가압장, 도·송수관로 신설(~'30.)
				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현재) 10,614m³/일 → (확충) 33,000m³/일 ▶ (신설) 처리수 지하관로 설치 추진(L=11km.)
면적	6,078,938m²			도로	▶ 단지 內 146개 일반도로 노선 확보
기업수	50여개사	종사자	1,500여명		

3 포항철강 산업단지

				전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포항전력소 154KV, ▶ 포항·영일·대송변전소 22.9KV
				용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단정수장 55,000m³/일 ▶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: 7,600m³/일 - 공업용수 33,400m³/일
				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포항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- 하수종말처리장 : 232,000m³/일
면적	13,183,000m²			도로	· 7번, 28번, 20번 국도, 68번 지방도 인접
입주기업	265개사	종사자	13,435명		

☞ 기존 첨단전략 특화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확장형 구조로, **추가 대규모 신규 부지 조성 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것이 강점**

[정주여건] 주거·문화·편의시설이 어우러진 고품격 복합 환경 조성

□ 풍부한 배후 주거단지 조성 및 청년·근로자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

- 산단 배후 신도시(5km 이내) 16만 명 거주, 공동주택 5.3만여 세대 밀집
- 추가로 10km 이내 3,672세대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 및 입주 예정('26. 上)
- 청년 및 근로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3,500호 공급 계획('30.)

□ 근로자 맞춤형 문화·여가 시설 확충 및 생활복지 강화

-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, 특급호텔,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
- 전문과학관, 공공도서관, 시립미술관, 국민체육센터 등 건립 중
☞ LFP+ 고급 연구·공정 인력의 안정적 유입 기반 제공

□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한 명품 교육 인프라 보유

- 포스텍, 한동대 등 세계적 수준의 대학 소재
- 제철고, 과학고, 국제학교 설립 추진 및 교육발전특구 연계한 교육환경

□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으로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

- AI(인공지능) 기반 첨단 교통 시스템 도입 교통 혼잡·사고 절감

[산업입지] 원료·소재 및 제품 공급에 최적화된 물류 허브

□ 항만·항공 인프라를 통한 이차전지 원료·소재 유통망 확보

- 포항항(45선석), 영일만항(컨테이너 4선석 일반부두 2선석), 포항경주공항(포항↔서울·제주도/50분)

□ 국내 수요처와 직결되는 사통팔달 육상 교통망 보유

- 대구-포항 고속도로, 울산-포항 고속도로, 남북7축고속도로(포항·영덕·삼척) 등 광역 도로망 구축으로 원활한 내륙 물류 운송 가능
- KTX 및 SRT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 확보하고 동해남부선(부산-포항), 동해중부선(포항~삼척)을 통해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연결

□ 해오름동맹 배터리·전기차 산업 벨트의 핵심 요충지

- 소재(포항), 전기차 부품산업(경주), 배터리·완성차(울산)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축 최적지

4 지역 주요산업과 소부장 산업간 연계성

[지역산업] 철강도시에서 이차전지 산업 중심도시로 지역산업 대혁신

- 철강에 이어 경북 포항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
 - 포항 이차전지 산업 수출 비중 2015년 1% → 2023년 38.5% 급성장
 - 이차전지 매출액 10조원으로 철강산업 매출액 35조원의 1/3 차지('23.)
- 5극3특 대구·경북권 성장엔진으로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선정 추진
 - 경북은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산업*으로 지역 산업의 강점과 상호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 산업으로 이차전지 선정
 - * 5대 성장엔진 : 미래모빌리티, 첨단로봇, 시스템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

[연계·협력] 既 지정된 특구와의 연계·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 고도화

- 국가전략 특구 간의 상호 연계로 기업유치 및 밸류체인 연결 가속화
 -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, 고에너지밀도 양극재 첨단특화단지,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, 녹색융합클러스터와 전략적 연계 앵커 기업 유치 및 전후방 연관기업 집적화 유도로 이차전지 산업 포트폴리오 확대

특구(클러스터)명	주요 내용
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('19~'23년)	대규모 기업투자유치 및 산단 활성화 및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/재활용 법령정비 성과 창출, 전국 32개 특구 중 최고의 운영평가 획득
이차전지 특화단지 (23년 지정)	입지·인프라(산단기반시설 구축지원, 인허가신속처리)→투자(세제)→R&D 사업화(예타특례, 실증지원) 등
기회발전특구 포항지구 (24년 지정)	이차전지 중심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지원, 특구 입주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, 소득·법인세 감면 등
녹색융합클러스터 (23년 지정)	포항 이차전지클러스터를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하여, 사용후 배터리 수거-재사용-재활용의 순환체계 조성

☞ K-배터리 전략의 “셀 해외생산-소재 국내생산” 구조에 부합

- 경북 지역 내 배터리 산업 클러스터와의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
 - 포항의 “소재 생산 능력”을 경북 내 인접 도시의 특화 산업과 연결하여 새로운 수요 시장 창출
 - * (포항·경주·영천·경산) 경주·영천·미래차 부품 클러스터, 경산·'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'
 - * (포항·김천) 김천의 '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' 내 e-모빌리티 실증 사업에 적용

[투자·고용] 2030년까지 14조원 규모 기업 투자유치

□ 앵커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 확정 및 밸류체인 전반의 투자 유도

- 이차전지 선도기업인 에코프로,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14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진행 및 계획
- ☞ 앵커기업의 투자가 소부장 협력기업의 연쇄 투자를 견인

구분		규모	투자내용	투자계획 (억원)	고용계획 (명)
영일만	에코프로BM 등 6개社	대	양극재, 전구체 등	38,020	3,010
	포스코퓨처엠 등 5개社	대/중소	양극재, 실리콘음극재 등	51,000	2,271
	에너지머티리얼즈	대	배터리 리사이클링	3,500	110
	효성(주), (주)우전지앤에프	대	황산니켈, 황산코발트	1,550	170
	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 등 5개社	중소	리사이클링 안소흑연 전해질 등	1,197	167
	소계			95,267	5,728
블루밸리	에코프로BM 등 6개社	대	양극재, 전구체 등	30,000	1,120
	포스코퓨처엠 등 4개社	대/중소	음극재, 리사이클링 등	9,640	351
	비에스원, 피엠그로우 등 5개社	중소	소성용기 배터리팩 도전재 등	1,270	265
	소계			40,910	1,736
철강	동국산업	중견	이차전지용 니켈도금강판	1,230	30
	소계			1,230	30
총 계				137,407	7,494

- 2025년까지 약 5.2조원 투자, 향후 8.5조원 투자 예정
- (에코프로) 영일만산단 내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 구축 및 블루밸리 산단에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을 위해 7조 원 규모 투자계획
- (포스코퓨처엠) 영일만 산단(양극재, LFP양극재) 및 블루밸리 산단(음극재, 전구체)에 약 3.4조 원 투자 확정
- ☞ 상기 투자는 LFP+ 자립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생산능력 확충에 직접 기여

□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및 대규모 고용 창출 계획

- (직접고용) 2030년까지 주요 투자 기업 확장 및 신규 입주 등으로 7,4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창출 예정
- (간접고용) 생산시설 건립에 따른 건설 인력, 물류·운송, 설비 유지 보수 등 후방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
- ☞ 직접고용 외 협력업체·공정 소부장 분야 파급 고용효과 포함 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예상

5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

[연구혁신] 세계적 수준의 산·학·연 R&D 집적 기반 구축

□ 앵커기업 및 핵심 연구기관 집적을 통한 R&D 역량 확보

- 에코프로 및 포스코홀딩스 그룹사 차원에서 이차전지 R&D 집중 지원
 - 에코프로BM, 포스코퓨처엠 등 앵커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운영
- 포스텍을 중심으로 RIST, 가속기연구소, 나노융합기술원,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국가 핵심 연구시설 밀집
 - ☞ 기업-연구기관 연계 공동 R&D 수행 기반 구축

□ 이차전지 특화 R&D 및 실증·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

-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,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,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동평가 센터 등 실증·평가 인프라 집적
 - ☞ 기업기초연구-공정개발-실증-상용화까지 원스톱 R&D 수행 체계 확립

[전문인력] 현장인력부터 차세대 연구인력까지 전주기 인재양성 체계 구축

□ 국내외 배터리 인력 공급, 글로벌 배터리인재양성 허브 조성

- (고교) 이차전지 협약형 특성화고 및 교육발전특구 연계 인력양성
 - ☞ 생산기술 중심의 산업 맞춤형 현장인력 조기 양성
- (대학) 포스텍·한동대 글로벌대학 및 경북 RISE 사업 연계
 - ☞ 산업계 수요 맞춤 인재양성, 취업연계 및 창업·기업지원 강화
- (대학원) 글로벌 협력 지원사업 및 포스텍 배터리특성화대학원 운영
 - ☞ 원료·소재·셀 설계 및 평가 가능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
- (예비취업자·재직자) 배터리아카데미 남부권 캠퍼스 운영
 - ☞ 전국단위 배터리 특화인력 양성 및 기업 수요형 재직자 역량 고도화

[지역계획] 2030 대한민국 이차전지 1등 도시 도약 목표

□ 2030년 매출액 100조, 일자리 1만 5천 개 창출 목표 종합계획 수립

- 3대 전략 8대 핵심 프로젝트 본격 추진으로 글로벌 배터리 거점 구축
 - (영일만산단) 보급형 LFP+ 탑재 배터리 EV 실증 기반으로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
 - (블루밸리산단) 국가 배터리순환 클러스터 친환경 테스트베드가 연계된 실증 허브 조성
 - (지자체 지원)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, 글로벌 협력 확대, 배터리 혁신성장 벤처펀드 조성 등

□ 기초 지자체 최초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('24. 5월)

- 이차전지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행정·재정적 근거 마련
 - *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 “배터리첨단산업과” 신설(23.1월)

[추진단] 추진단 운영을 위해 연간 지방비 10억 지원 계획

□ 경북도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 구성

-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, 산학연 연계협력,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계획
-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KPI 기반 성과관리 체계 운영

